

하상주보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4년 8월 25일
제2015호

주임 신부: 김태진 베네딕토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 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 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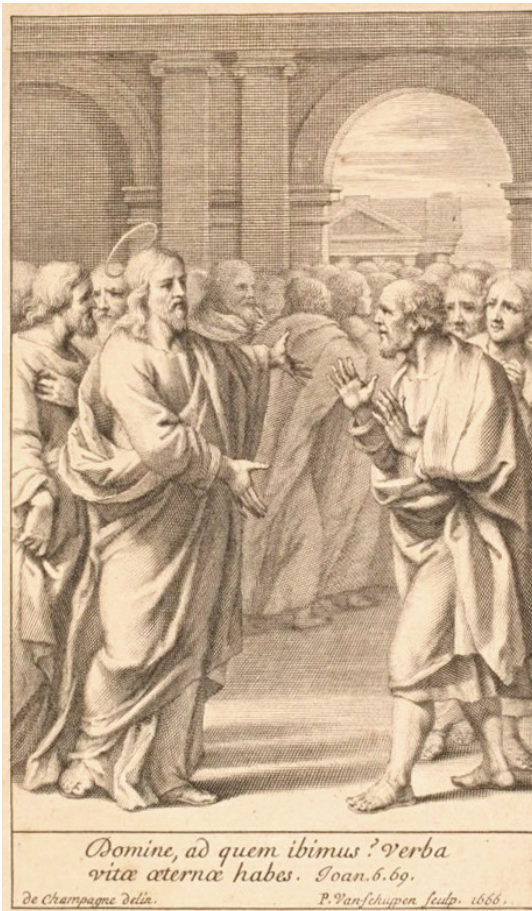
이메일: sthasang@gmail.com

기도로 힘을 얻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리라.”(묵시 21,5)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 6,67-69)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필리프 드 샹파뉴, 1666년, 동판화

연중 제21주일 (나해)

제 1 독서 **여호 24,1-27.15-17.18-20** |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십니다.

화답송 **시편 34(33)** |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에페 5,21-32** |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는 큰 신비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요한 6,60-69** |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⁶⁰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⁶¹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 귀에 거슬리느냐?”

⁶²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⁶³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⁶⁴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⁶⁵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⁶⁶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⁶⁷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다.

⁶⁸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⁶⁹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 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음 묵상

“제자들 가운데에서”(요한 6,66) 많은 이가 돌아갔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단순히 빵을 찾아왔던 군중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 나름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던 이들이 돌아서서 떠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붙잡지도 않으십니다. 그래도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며 남아 있겠다는 이들만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듣기에 거북할까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일까요? 듣기에 거북하다고 한 이들도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한 복음서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라고 하신 말씀 때문에 떠나갑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에서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듣기 거북해합니다. 포도밭의 일꾼들은 포도밭 주인이 후하다고 하여 화를 내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자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도,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따라오라는 말씀도 듣는 이에게는 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던 그 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떠나가는 이들에게 이것을 굳이 다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6,65) 당신 곁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북하게 들리는 그 말씀, 따라가면 죽을 것만 같은 그 말씀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뛰어 들 수 있는 이들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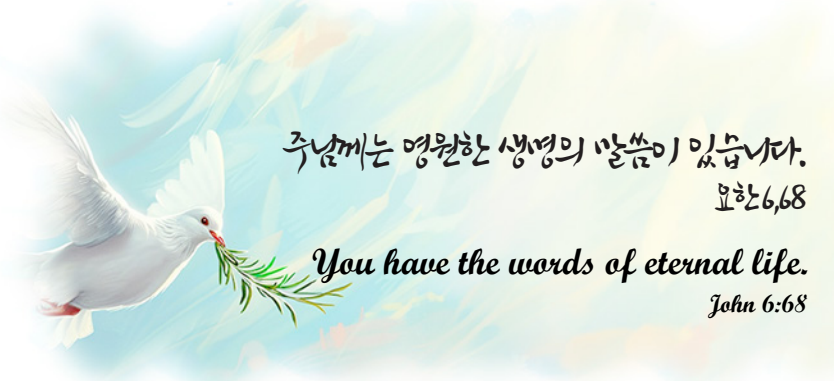
(안소근 실비아 수녀)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6,68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John 6:68



김태진 베네딕토 신부님 인사말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인사이동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하느님의 섭리를 느껴봅니다.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10월, 미국 버지니아에 첫 발을 내딛은 날입니다. 팬데믹으로 종교행사도 금지되었고,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던, 다시금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 방송을 통해 인사를 해야 했고, 만남을 기약할 수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미사 참여자를 100명으로 제한하고 미사가 재개되었으며, 혹 확진자가 다녀가면 또 잠시 중단을 하며 팬데믹 상황을 이겨낸 우리 공동체. 어려운 환경이지만 신앙의 끈을 놓지 않고 함께 해 주신 공동체 모든 신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는 알링턴 교구에서 한국어로 미사를 봉헌하는 본당으로 승격된지 25주년을 지냈습니다. 알링턴 교구에 한인 공동체로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신자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리매김과 교구 안에서 한인공동체에 대한 인정.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동안 쌓아온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사목자로서 한 사람의 잘못은 그 한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인 전체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구의 행사나 교구에서 하는 일들에 대한 관심으로 함께 하고, 교구에서 추진하는 사목에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교구 설정 50주년 희년 축제를 준비하며 기억하고, 기뻐하며, 새롭게 변화하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걸어온 모든 신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 정바로로 성당 신자 여러분,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고귀한 추억은 영원히 저의 가슴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에게 많은 사랑을 주시며 기도해 주신 모든 신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제 이전에 하나의 부족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를 청해봅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 준 모든 신자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성장시켜 모국으로 돌려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사랑에 대한 보답은 기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본당 공동체와 모든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중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들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함께여서 행복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8월 25일(일) 모임 안내

- 루카회 (60대 남녀 교우, A-1)
요한회 (50대 남녀 교우)

2 구역 임원 교육

- 일시 : 9월 1일(일) 오전 11:30 (B-1,2)
- 구역 임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 KoC 월례 회의

- 일시 : 9월 1일(일) 오전 11:30 (B-3)

4 병자 영성체

- 일시 : 9월 6일(금)
- 신청 : 정문기 윌리엄 (703) 598-3316

5 토요 신심 기도 및 미사

- 일시 : 9월 7일(토) 오전 10:30(첫 토요 신심 미사)
파티마 사도직 기도회 : 오전 9시
- 토요 신심 미사에 함께 해 주시기를 청하며
토요일 새벽 미사는 없습니다.

6 파티마 성모님 개인 가정 순례 접수(선착순)

- 순례 기간 : 9월 8일(일) - 10월 13일(일)까지
(일주일씩 총 다섯 가정에 머무심)
- 신청 :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이종석 루카 (703) 254-7963

7 하상 성인학교 2024년 가을 학기 안내

- 일정 : 9월 10일(화) - 12월 6일(금)
- 등록 : 8월 25일(일), 9월 1일(일), 9월 8일(일)
주일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등록금 : \$60 (점심 없음)
- 등록 안내 및 신청서 : 성당 입구 주보대에 있음
- 과목 : 생활 영어, 수지 요법, 라인댄스, 수목화,
민화, 합창교실, 색소폰(Saxophone),
장구교실, 기타(Guitar)
- 세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김 윌리야나 교장 (703) 217-2775

8 추석 합동 위령미사

- 일시 : 9월 17일(화) 오후 7:30
- 한가위를 맞아 먼저 세상을 떠나신
조상, 부모, 친척, 친지들을 위하여 기억하는
합동 위령미사가 봉헌됩니다.
합동 위령미사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세요.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김태진 베네딕도 주임신부님 송별 미사

김태진(베네딕도) 주임신부님께서 원주교구의 인사 발령에 따라 임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갑니다.
그동안 헌신적인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신부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 송별 미사 | 8월 25일(주일) 오전 10시 미사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 부임 미사

제10대 주임신부님으로 부임하시는 배하정 다니엘 신부님을 환영하며 신부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 환영 미사 | 9월 1일(일) 오전 10시 미사

봉사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주일 및 평일에 본당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봉사자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본당을 위해 봉사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구 황금희년을 위한 전대사

- 알린턴 교구 황금희년을 맞이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전대사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 전대사 조건은
 - ① 순례를 위해 성 토마스 모어 성당을 방문하여 성스러운 희년 행사에 참석하고
 - ② 고해성사,
 - ③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 ④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 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 전대사는 금년 말일까지입니다.

교중미사 예물봉헌

08/25 이번 주	페어팩스 2-1구역
09/01 다음 주	페어팩스 2-2구역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4년 8월 18일 (연중 제20주일)

봉헌금	\$ 7,833.00
성모승천 대축일 헌금	\$ 3,660.00
교무금	\$ 10,100.00
교무금(신용카드)	\$ 3,130.00
감사 헌금	\$ 40.00
2차 헌금	\$ 3,119.00
온라인 봉헌	\$ 3,910.00
합계	\$ 31,792.00

버지니아 성정바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1030
Fios Ch. 30

- 2024년 8월 29일(목) 오후 5:00 - 6:00
- 2024년 8월 30일(금) 저녁 8:00 - 9:00
- 2024년 9월 01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교회미술 2천년 : [제 9강]
르네상스 상인과 미술(2)

| 교황님의 8월 기도지향 | 정치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보살피면서 국민을 섬기도록 기도합니다.

미사 전·후 성당 입구에서 침묵을 지켜 주세요

성당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미사 전·후에 성당과 성당 입구에서 조용히 침묵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